



## 캐릭터 설정

다인 : 16세 (검사)

아리스 왕국 변방 마을 칼리의 10인대 대장

1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을 지키는 자경단의 일원으로서 소꿉친구인 사제 엘리스와

티아 : 13세(사제)

마을 칼리의 유일한 수녀 마을에서 다친사람을 보살펴 주는 일을 주로 한다.

다인과는 소꿉친구 사이이며 자경단의 치료사를 전담하고 있다.

웰더 : 24세 (사냥꾼)

칼리 옆의 동산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는 노총각 사냥꾼 마을에 동년배가 없

## 용어 설정

글라시아 :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르키는 총칭 문명의 발전이 대륙별 인종별로 다르기에 합의하에 대표적인 주신의 이름인 글라시아로 명명하였다.

# 국가 설정

메트로 칸 : 왕국민 전체가 일정한 거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움직이는 성으로 돌아다니는 유목 민족

실제로 정착이 힘든 이유중 하나는 국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발전소의 열에너지와, 폐수등 사람이 살수 없는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기에 이런 기형적인 국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아리스 왕국 : 대륙 서부 끝에 위치한 약소 국가로서 국가가 작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경생활 혹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시그나 성국

주신 시그나를 국교로 하여 만들어진 성국 태초신 글라시아의 아이들로서 그들의 능력을

제국

콩고르디아 마국 : 초대 국왕이 독자적인 마법 체계를 설립하여 단순히 전쟁을 위한 마법이 아닌, 생활속에 밀접하게 마법을 설립, 주문으로서 마법의 발현을 하는 것이 아닌, 상상으로써 발현하는 방식이기에 각자의 성향, 속성, 성격에 따른 고유한 마법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실 예로 수영을 좋아하는 자는 수상에서 빨리 움직이거나 혹은 주위에 수영장을 만드는 마법, 또는 물속에서 회복을 하는 마법등 자신의 관점에서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알슈타인 연맹 : 마력이 아닌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여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현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연맹

폐쇄적인 연맹으로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유출은 철저히 막고 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과학기술로서 기관총과 같은 총기는 물론, 거대한 함선과 비행물체까지도 운용하기도 한다.

## 썬 1 각성

태초에 신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글라시아의 시초이자 태생, 하지만 그도 원래는 하나의 작은 별이었을 뿐이다.

단지 운이 신에게 기울었을 따름, 그 운이 없었다면 글라시아의 역사는 다르게 되었을지 모른다.

태초력 0년 글라시아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각성하였다. 자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본인이 하고픈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초력 167년 결국 자유에 질린 글라시아는 자신을 이용해 하나의 별과 한종의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 썸 2 회상

[병사] : "충성 다인 지휘관님 출정 준비 완료 했습니다"

다인

## 썸 3 기상

[???] : "헉!!!! 꿈!!!!"

"꿈도 참 리얼리티하네..

내가 글라시아가 되는 꿈이라니.....

어제 설교를 너무 들었나?"

[???] : "다인!!!! 일어나!! 출근해야지!"

"또 늦잠자는거야?"

다인 : (귀찮다는 듯) "네네~~ 알겠습니다요~~"

"이런날은 좀 늦잠을 자도 되잖아, 티아~"

티아 : (짐짓 화난 표정으로) “ 안된다고! 다인이 한두번 늦었어야지!  
심지어 진급일에 늦는다는건 절대안되!”

다인 : “어차피 내 진급일인데다가 코딱지 만한 마을에서 진급하는 건데 뭐 어때?”

티아 : “그건 그렇지만, 16살 성인식도 같이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단 말야!  
그리고 다인은 내가 처음으로 성인식을 치뤄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인 : “하긴 성인식도 있었지...  
그럼 너 사실 내 성인식이 기대되어서 새벽부터 깨운거였어??  
너도 어차피 3년 뒤면 성인식을 할텐데 그땐 어떻게하려고 그래?”

티아 : “히힛. 하지만... 기대된단 말야! 다인이 성인이 되면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빨리 가자 다인!”



## 썸 4 축제

[???] : "오 우리 마을의 유명인사 용사 다인아니신가?

이런 귀한곳에 누추한 손님이 무슨일로??"

디안 : "아이 웰더 아저씨 그만좀 놀려요..

성인식에 신탁이 내려왔다고 다들 용사가 되는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티아 :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웰더 아저씨! 축제 준비 때문에 고기좀 얻으러 왔어요"

웰더 : (투덜투덜) "아저씨 아니라고! 꽃다운 24살에 무슨 아저씨야! 사람이라곤 아줌마 아니면 꼬맹이만 있어서 못한거라고!!"

티아 : "에이 또 그러신다... 매번 이상한 사람한테 추파나 던지시고 하시니깐 그렇죠"

웰더 : "캬악! 장난 식으로 그만하라고!! 어차피 나 아니면 고기를 얻는것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놀려먹어야 겠냐?"

그렇게 3명이 일상적인 만담을 하던 그때..

(딸그락 딸그락)

3명 일동 : (흠칫!)

디안 : "웰더 아저씨 설마...."

웰더 : "맞아 마을 주변에 설치해둔 경보 장치야."

티아 : “지금 축재를 한다고 다들 정신없는데....

빨리 가봐요 사람들이 위험해요”

웰더 : “그래 어서 가자”

## 썬 5 선혈의 축제

3명이 마을근처에 도착하자 보이는 것은 마을이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현장이었다.

티아 : “사람들이!!

빨리 구해야 해요”

웰더 : “잠깐! 위험해... 아무리 봐도 누가 일부로 지른 불이야. 주위에 마을을 습격한 습격자가 있을수 있어”

다인 : “그럼 어떻게하자구요?

“지금 구하지 않으면 다들 죽는다구요!!”(라는 말과 함께 달려간다)

다인이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마자 보이는 것은 유혈이 낭자한 마을과, 간신히 막고 있는 다인 소대의 자경단들, 그리고 복면의 습격자들 이었다..

다인 : “야 이 개 같은 녀석들아!!”

“다 너희들이 한짓이지?”

복면인 : “목표다! 저녀석이 합류하지 못하게 해!”

다인 : “죽어 버려 이 개 같은 자식들아!!”

다인이 달려들 때 때맞춰 도착한 티아와 웰더가 부대에 합류한다.

## 썬6 격동의 시작

마지막 복면인 : “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자결용 단검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면서 자신을 잡고 있는 다인까지 찌르려 합니다)

티아 : “안되!!”

다인 : (간신히 피하며) “큭....”

“누가 이런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해!!”

“그러지 않으면 편하게 죽지는 못하게 해주겠어!!”

마지막 복면인 : “말할 수 없다. 단지 예언만을 따를뿐”

웰더 : “예언?? 혹시 그 헛소문을 믿는 건가??”

마지막 복면인 : “말할수 없다!”

웰더 : “괜찮아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깐”

“하지만 그런 헛소문을 믿다니”

“용사들은 실재로 잘 살다 죽었잖아?”

마지막 복면인 : (움찔)

웰더 : “응?? 설마.....”

뒤에서는 티아가 부상당한 다인을 치료하고 있다.

## 썬 7 이별

다인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울썩한 표정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마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듯이..

다인 : “그럼 가볼까?...”

[회상]

웰더 : “미안하다 다인 4일만에 깨어났지만 아무래도 너는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지낼수는 없을 꺼 같다..”

다인 : (간신히 회복해서 정신을 차린 모습) “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웰더 : “네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란다. 단지... 그 암살자들이 문제지 그 암살자들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와서 널 죽이려 할꺼고, 결국 넌 그들에 의해 죽게 될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 모험을 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 좋을 좋을 것이다.”

다인 : “아무리 그래도 이런식으로 갑자기.....”

웰더 : “네 사정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주겠다. 잘 준비해서 가거라”

[회상 끝]

티아 : “잠깐 기다려!!!!”

“너 혼자 가지 말라고!!”

다인 : " 티아 너가 왜 여기에 왔어??"

티아 : "날 버리고 가면 어떻게하려고!!"

"아니 가라고 했지 혼자 가라고 한거는 아니잖아